



乳牛飼育上限線 規制와 底能力牛 도태 補償 및 轉業誘導, 輸入開放 壓力의 현명한 對應方案 세워야

韓國 酪農肉牛協會
專務 김 남 응

1. 서언

우유가 남고 있다. 금년 4월경만 하여도 우유가 남는다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상반기까지 유업체간에 우유쟁탈전이 전개되기도 하였었다. 연초에는 우유가 부족되리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어렵게 인상이기는 하였지만 원유가격이 인상되었던 것이다. 만약에 우유가 남는다는 예측이 있었다면 원유가격의 인상은 안되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우유의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우유시장은 좁아서 남고 모자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그러면서도 그 폭이 얇았다. 남는가 하면 곧 모자라곤 하였다. 과거의 예를 보면 잉여되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대책을 시행하다보면 우유부족현상으로 돌변하여 계속 우유를 공급하여야 할 곳에 공급을 중단하는 예가 있었다 즉 국민학교에 우유를 급식하다가 우유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학교우유급식을 중단하곤 하였다. 학교당국에서는 학생들이 우유를 먹는 기계냐고 항의를 하곤하였다. 우유가 남으면 급식하고 모자라면 중단하니 학생들이 남는우유 처분하는 기계냐는 것이었다. 현재의 우유소비 둔화가 계속되어 우유가 계속 잉여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는 의견이 구구하다.

2. 우유는 계속 잉여 될 것인가

낙농가를 제외한 우유를 취급하는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예측은 앞으로 계속 잉여되리라는 것이다. 금년도의 우유소비는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전년대비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큰 충격임에 틀림없다. 전년대비 우유소비가 왜 줄었느냐.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이 원인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시하고 있다.

원유대가 인상되었고 이 원유대 인상폭보다 소비자가격 인상폭이 커서 소비자들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것,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액이 전년대비 반감된 것, 이상구신드롬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던 것, 그리고 건강식품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에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 보다 좋지 못하다는 새로운 이미지 해소를 위한 홍보의 미진 등이 우유소비를 전년대비 감소케 한 큰 원인중의 일부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유소비 유형을 보면 음용용이 70%, 가공용이 30%로 선진낙농국에 비하여 반대현상으로 음용은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가공품의 개발과 이의 소비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유는 계속 남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를 위시한 일부에서는 젖소 50만두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 낙농가들의 눈에 비친 점으로는 정부에서도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의지가 없었고 유업체에서도 이상구의 계속되는 방송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으로 보아서도 의지가 없었으며 낙농가들도 결집된 힘이 발휘되지 못하고 낙농가 상호간의 시비로 허송하였던 것이다. 시중에는 부정유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 더 심하여졌다. 이 모두가 우유를 남게한 원인들이다. 이 원인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 때문에 우유가 잉여되게 되었다는 것이 낙농가들의 주장이다. 우유소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그렇게하고도 우유가 잉여된다면 그때는 낙농가들도 우유생산량을 감량키 위한 어떤 대책에도 동참할 것으로 본다. 우유가 잉여된다면 낙농가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우유가 잉여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도 하지만 낙농가들은 현재의 우유잉여는 원래는 잉여되는 것이 아닌데 인위적으로 잉여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즉 우유가 잉여된다면 세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11월 13일 발표한 정부의 우유수급안정대책에도 우유는 계속 잉여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자에게 우유생산을 줄이는데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상적인 젖소 도태 두 수 8만4천두 이외에 3만 여 두를 더 도태하여 달라는 것이다. 정부와 유업체에서는 우유는 계속 잉여된다고 보고 있으며 생산자들은 정부와 유업체에서 우유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만 하여 주면 우유는 결코 잉여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유가 계속 잉여된다고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우유잉여에 대한 대응책

만약에 우유가 계속 잉여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겠는가? 반문한다면 뚜렷한 묘책이 없다. 모든 농축산물이 생산량이 부족하면 수입하여 부족량

을 충당 할 수 있지만 과잉생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묘책이 없었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생산량 부족시는 부족량을 수입으로 충당함으로 타격을 받고 생산량 과잉시는 정부의 무대책(無對策)으로 농산물값 폭락으로 타격을 받는 등 이중적으로 타격을 받아 왔다. 정부와 유업체들이 우유소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는데도 우유가 계속 잉여되어 재고로 누적(累積)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외국에 수출을 한다는 것도 일시적이고 또 어떤 일정량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면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와의 차액을 보상하면서 수출을 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잉여된다고 하면 이또한 어려운 일이다. 정부에서 한정 없이 보상을 하면서 분유를 계속 수출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유잉여에 대한 최종적인 방법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생산을 조절한다는 것은 규모를 적정화하여 소를 더 증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은 문제가 없겠으나 목장을 개설하여 얼마안되어 계속 젖소를 증식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과 이하간에 격차를 두고 생산조절 즉 일정규모이하에는 규제를 하지 않고 그 이상은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조절을 한다면 자가 노력에 의한 낙농업으로 유도도 되고 우유생산량도 조절되면서 일정규모이하는 규모확대를 일정규모 이상은 규모축소를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는 젖소도태에 일정금액을 보상을 하면서 도태를 유도하기도 하고, 폐업보상금을 주면서 폐업을 유도하기도 하여 우유생산량을 주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낙농선진국에서는 이 두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유소비량도 다른 낙농선진국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숫자며 생산량 역시 많지 않은 상태다. 2년전에도 우유가 잉여되니 우유생산량을 조절하여야겠다고 우유생산조절을 위한 입법예고가 있었다. 낙농인들의 반발로 불발로 끝났으며 끝이어서 우유잉여가 부족상태로 돌변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유의 잉여와 부족을 예측하기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우유가 계속 잉여된다면 최종

단계에서는 우유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수 밖에 없겠는데 현재 우유가 체화된다고 하여 앞으로 계속 우유가 잉여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유소비를 위하여 정부, 유업체, 낙농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하고도 우유가 계속 잉여된다면 후에는 생산량조절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단견을 가지고 생산조절문제를 거론하여 낙농가에게 심적부담을 주어 우리나라의 낙농업발전을 멈추게 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외국의 낙농역사는 길고 또 기반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였으며 또 현재도 학교우유급식비 보조, 소비자가 우유를 염가로 먹을 수 있도록 우유대의 일부 국고지원, 유제품 수출을 위하여 국고지원 등 국고의 지원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하고도 우유가 잉여되니 생산조절문제를 대두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교우유 급식비의 일부 보조액도 지난해 보다 금년은 반액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송두리째 삭감하는(국회심의과정에서 살아나면 다행) 그런 상태고 보니 현재 쌓여 있는 우유재고는 우유잉여로 인한 재고라고 보기보다는 정책결여에서 오는 재고로 볼 수도 있으므로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하여야 할 정부의 투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4. 낙농여건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여건상 낙농업의 신규참여가 어렵게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농민들이 낙농업에 참여 한 것 보다는 비농민이 낙농업에 많은 참여를 하였으나 지가의 상승, 인력문제 등으로 인하여 비농민의 낙농업 참여는 어려워졌고 농민들도 일시에 큰 규모의 낙농업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1~2두의 소규모 낙농으로 시작하여 그 수를 더하여가며 일반농사에서 낙농업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낙농가만이 새로 생길 뿐이다. 1~2년간 불 일듯 일어났던 노사분규는 농촌노임을 상승시켰으며 또 돈보다는 사람답게 산다는 풍토가 농촌에 파고들어

목장에서 휴일도 없이 계속 소똥 냄새를 맡으며 계속적인 생활을 하기 보다는 돈은 적게 벌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택하여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도시에서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운동은 곧 농촌인력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농촌인력부족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이 결과 자력으로 낙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노동노력에 의한 낙농업을 제하고는 이미 많은 목장이 폐업을 하였고 또 앞으로도 상당 수가 폐업을 하리라고 본다. 또 현존하고 있는 목장도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우유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젖소거래상황을 보면 많은 목장이 폐업을 위하여 사육하고 있는 젖소 전체를 내 놓았으나 살려는 사람이 없어 팔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의정부의 한 지역을 보더라도 11월하순, 현재 5개 목장이 폐업을 위하여 젖소를 팔려고 내 놓았으나 살려는 사람이 없어 팔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 3개 도매시장에도 폐우젖소가 평상시보다 수 배가 되는 숫자가 몰려 들고 있다고 한다. 겨울을 넘기는 조사료는 곡초(벼짚)가 대부분인데 금년도의 곡초사정은 극히 나쁜 실정으로 이 또한 우유생산량을 감소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본다. 11월하순, 현재까지는 원유대를 못주거나 원유대의 일부를 분유로 준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으나 아직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도 젖소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은 우유생산량의 증가가 한계에 왔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젖소 도태를 자연적인 도태 이외에 인위적인 도태를 하지 않더라도 우유생산량은 정부에서 우려하는 선 이하에 머물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우유생산량을 주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유소비에 더 신경을 쓰면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우유생산량보다 우유소비량이 앞설 것으로 낙농상황이 변하고 있다.

5. 결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우유수급장기대책은 현 시점에서 수립하기란 여건 변화가 심하여 매우 어렵다. 모든 여건 변화는 우유생산량을 감소케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 우유가 잉여되리라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금년도의 우유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이란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우유소비가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 같다. 우유생산량

이 예년 수준 이하로 되고 우유소비가 예년 수준만 유지하여 준다면 현재의 재고도 봄에 눈 녹듯이 스스로 없어지리라고 본다. 정부, 유업체, 낙농가 모두 좌절하지 않고 우유소비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예정보다도 더 빠르게 낙농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여건이 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